

원 본	세이교 신문	발행일	2018-08-14		면(面)		
제 목	자기답게 스마일	내 용	독자체험담				
		번역레벨	완직역	쫄직역	어중간	쫄의역	완의역
					0		

현대사회는 가족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50년간 핵가족 세대는 2배 증가에 그쳤지만 단독 가구는 10배로 확대됐고. 늦은 결혼, 독신의 증가와 같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차츰 중요시 되는 것은 자신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강한 생명력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지바 현 나가레야마시 모토무라 유미코 씨(43, 코마키 지부, 지구부인부장)는 어머니인 아키야마 요시코 씨(68, 아이치 현 도카이시 지부부부인부장)로부터 물려받은 지지 않는 신심으로 전신의 피부병을 극복하고 2016년(헤세이 28년)7월에 결혼. 지금은 남편 다테 다스쿠 씨(37, 남자부 부지구리더)와 함께 태어날 미래의 가족을 마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편집자)

## 〈신앙 체험 자기답게 스마일〉

나의 고민 ... 전신 피부 질환, 미래의 가족

### 희망을 버리지 않는 힘을!

피부병을 앓은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병을 앓았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살결이 고와졌습니다. 14명의 우인이 나의 체험이나 확신을 보고 학회에 입회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얻은 「희망의 빛」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함께 걷는 저의 보은의 인생입니다.

### 천장에서 느닷없이 나타나기도...

아버지는 마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가족과의 약속도 잊어버린 채 빗쟁이에게 쫓겨 다니고 자주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천장에서 "안녕!"하며 얼굴을 내민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며 아버지의 빛을 갚느라 갖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오열하며 기원하고 있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쿠마모토의 시골 마을에 있는 다다미 6장(3평) 방 한 칸의 함석집에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야근 하시는 날, 단란하고 짧은 저녁 시간만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고마워!」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밤은 불안해서 좀처럼 잠이 안 옵니다. 작은 이불로 동생과 몸을 맞대며, 카세트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서유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외로움을 달래 주었습니다.

## 괴물을 보는 듯한 눈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 일도 학회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 8월, 27살 때 입원했습니다. ‘급성 두창성 태선양 비강진’이라는 병명으로 전신의 피부가 괴사하는 원인 불명의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일본 내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치료해서 다 나아도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하며 화상 자국 같은 피부가 온몸에 퍼져 있는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빠졌습니다. 결혼은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밖에서 나갈 수나 있을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원하면서 얼굴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굼아 딱지가 되어 껍질째 벗겨졌습니다. 몸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 날아왔습니다. 동생은 ‘언니가 이상하게 보여서 난 속상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격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본존님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고 보거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시라면, 분명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하는 학회의 선배와 여자부 동지들을 떠올리며, 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엽서를 여러 장 사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꼭 병을 고치고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등에 약을 발라서 주던 간호사가 제게

‘유미코씨, 요즘 자주 웃는걸 보니 좋은 일 있나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웃고 있었구나, 병에 지지 않아!’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 창가 학회원입니다"

## 포기한 결혼 어머니의 눈물

병원 침대에서 정신없이 이케다 선생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법화경방편품·수량품 강의』에 「강한 사람은, 장애마저도 활용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렇다. 강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활로를 열 수 있다. 피부가 원래대로 되든 말든, 나는 ‘사는 기쁨’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어느새 동지들에게 보낸 엽서는 500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 2개월 후, 등에 약을 발라주던 간호사가 학회에 입회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병의 진행이 멈췄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피부가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환자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적응 장애를 앓는 등 계속 병과 싸웠습니다. 나이도 40세를 넘어서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7월, 연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기원한 대로였고, 나의 과거와 병, 마음까지 모든 것을 받아 주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제 손을 꼬옥 잡고 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겨우 소리를 내어 ‘잘 됐다, 축하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나이와 몸 상태를 생각하니 아이를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가볍게 해 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는 유미짱(유미코 애칭)과 같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행복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평소 “두 사람, 쪽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나의 행복이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부부로 효도하고 싶습니다.

9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댁까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소중히 해 가자고 결심했습니다.

## 자기의 결점은 "없어서는 안되는 점"

결혼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퇴근은 대개 막차를 타야 할 정도로 늦습니다.

그 속에서도 좌담회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아성회(보성회)의 임무를 맡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년 동안 직장에서 2계급 승진하고, 6월에는 회사 대표로 미국 연수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제가 칭찬 받는 것처럼 기쁩니다.

저는 지역에서 구연 그룹(장애인이나 아동을 위해 글을 읽어주거나 녹음하는 모임)의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영미세스와 주변의 친구를 초청해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에는

14개조의 부모와 아이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림책을 읽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불 속에서 들었던 "서유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를 키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것은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릴 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과거엔 힘든 자신을 '결점투성이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결점이 자신을 자신답게 만든 '없어서는 안 되는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저는 앞으로 아이를 낳을 지도 아니면 둘이서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불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케다 선생님이라는 인생의 스승이 계십니다. 수많은 기로에 놓일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남편과 기원하여 길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길에 자기다운 미소가 밝게 빛난다는 믿음으로! <끝>

[참조]

다다미 1장=약0.5평

체험담 원본 링크 <http://sumo7.hatenadiary.jp/entry/2018/08/14/085102>